

HOME > 전국

안양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기업인·자원봉사자 등 70명 '인천 용진군 갯벌' 체험

이배운 기자 승인 2019.06.21 15:45



[사진=안양시]

[이뉴스투데이 이배운 기자] 안양의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이 모처럼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안양시는 20일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45명과 이들은 인솔한 기업인과 자원봉사자 등 70명이 인천 용진군에 있는 갯벌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2007년 결성된 안양기업연대 사회공헌릴레이는 기업체 대표와 사회단체장 등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봉사활동의 일환이다.

이날 갯벌체험은 기업사회공헌릴레이 제43탄으로 LS오토모티브(대표 이철우), 그린빌산업(대표 박상희), 국제나은병원(대표 정병주/한영미), 국토교통부과학기술진흥원(대표 손봉수), 고려개발(대표 이주익), 농협안양시지부(대표 이영철) 등 6개 기관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어린이들은 TV에서나 보았던 갯벌에서 직접 조개를 캐보고 돌을 들춰보며 게를 잡는 등 시간가는 줄을 몰라 했다. 앞서 견학지로 방문한 영흥화력발전소 에너지파크(인천광역시 옹진군)에서는 전기에너지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는 기회가 됐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LS오토모티브테크놀로지스 윤성식 봉사자는“아이들이 에너지파크에서 상상력을 키우고, 드넓은 갯벌에서 자연을 배우며 서로 하나가 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내일의 희망이 될 아이들에게 해맑은 웃음을 선사해줘 흐뭇했다.”고 전했다.

또 체험에 참여한 한 어린이는 전기의 소중함과 바다 생태계 보존의 중요성을 깨닫는 좋은 기회였다고 하며, 커서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른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사회공헌릴레이 출발 현장인 시청 앞에는 최대호 시장이 배웅을 하며, 기업인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어린이들에게도 행복한 시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안양시]

이배윤 기자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하기